

초등학교 음악수업의 실태조사*

현 경 실**

차 례

- I. 서 론
 - 1. 연구목적
 - 2. 연구의 문제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 2. 연구도구
 - 3. 연구 방법 및 절차
- IV. 결과 및 해석
 - 1. 활동별 실태
 - 2. 플랜더스 언어상호작용 분석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
- 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교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각자의 의견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동조하여 실험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교사의 노력에 따라 학습분위

* 대구교육대학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인.

** 대구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조교수

기가 좌우되고, 학습의 효과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수업은 우리 교육의 핵심이다. 시대가 아무리 빨리 변한다 해도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 거의 모든 교육이 교실에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업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하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행동이나 말, 표정 등은 수업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교사 일방의 수업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에 의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김민혜, 1990). 학습에서 경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학습의 주도권은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교수-학습 과정이 교사가 이미 준비된 지식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의 성격이 학생의 반응 및 태도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사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학생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1940년대부터 활발해 진행되어 왔다. 앤더슨(Anderson, 1967), 코간(Cogan, 1967), 리안(Ryans, 1960), 크리스텐슨(Christenson, 1960) 플랜더스(Flanders, 1960) 등은 교사의 행동 유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교사의 행동 유형이 학생의 책임감, 사회성, 자심감은 물론 학습 효과에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교수 행위에 대한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배적, 전제적, 배제적, 교사 중심적의 지시적이고 제한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통합적, 민주적, 포용적, 학생중심의 비지시적이고 권장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두 가지이다. 많은 학자들은 전자의 방법보다 후자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에 학생들의 학습이 효과적이라는데 동의한다(김민혜, 1990). 즉, 교사의 행동 유형을 이분화하여 생각한다면 전제적이고 지시적인 교사 중심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포용적이고 학생을 존중하는 비지시적인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교사의 행동 중에서도 수업 중 교사의 언어사용은 학생들과 지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수업이 교사의 언어가 중심인 강의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 중심의 수업일수록 교사의 노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사의 언어사용이나 학생의 반응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그 중요성도 무시되고 있다. 또 교사의 태도나 언어사용에 대한 지침서는 많지만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조사도 없었다.

학자들 중에서 특히 교사의 언어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가 플랜더스이다. 그는 수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사의 언어사용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였고, 학생의 언어사용 유형도 2가지로 분류하여 수업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언어 유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플랜더스의 언어적 상호 작용 분석법을 이용하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현장 교사 자신들의 수업개선을 위한 수업 분석방법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은 물론 어떤 유형의 언어가 수업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다.

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수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악 수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문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수행한다.

첫째,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악 수업을 한 단위 수업별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신체표현, 이론 등으로 나누어 영역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둘째, 플랜더스 언어 상호 작용 분석법(The Flanders Category System)을 이용하여 음악수업을 다음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 1) 음악 수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언어 활동 유형을 분석한다.
- 2) 교사의 언어 활동을 지시적과 비지시적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조사한다.
- 3) 학생의 언어 활동을 단순 대답과 자진 대답으로 분류·분석한다.
- 4) 교사와 학생의 언어 활동의 비율을 조사한다.
- 5) 학생의 발언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조사·분류한다.

Ⅱ. 이론적 배경

많은 학자들이 수업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수업 형태를 제시하였다. 앤더슨(H. Anderson)은 “지배(支配)적 행동과 통합(統合)적 행동 측정”이란 논문에서 교사의 수업 중 행동을 “지배적 행동”과 “통합적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유치원 수업을 분석하였다. 교사와 학

생 사이의 접촉 행동을 24개 항목으로 나누어 5분 단위로 분류 기록하였다. 이 항목들은 크게 지배적 행동과 통합적 행동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지배적 행동이란 학생을 꾸짖거나 창피를 주는 일,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 학생의 반응을 억누르는 일, 위협하고 야단치는 일, 학생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들이 포함된다. 반면에 통합적 행동이란 융통성이 있으며, 학생을 격려하고, 상대방의 개인차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의미 있게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진해서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말한다. 각기 다른 교사가 가르치는 세 반이 이 연구의 대상이었다. 세 교사는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대했다. 이 연구의 결과, 교사가 지배적이 될 때보다 통합적이 될 때 2배에서 5배까지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레빈(Lewin), 리피드(Lippett), 화이트(White)는 교사의 태도와 교실의 분위기에 따른 학생들의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그들은 교사의 태도를 전제(專制)적, 민주(民主)적, 방임(放任)적 지도 방법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전제적인 지도 방법을 쓴 집단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격성 또는 무관심한 행동 유형을 보였다.

우이드로울(Withall)은 교사의 행동이 교실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교사의 행동을 분석하는 신뢰도와 타당도 있는 도구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교사의 행동 중 특히 언어적 행동은 학급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이를 분석·측정하기를 원하였다. 그는 교사의 언어행동을 중심으로 교실의 사회적 정서적 분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어 냈다. 일곱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지수는 교사의 언어 활동이 학생 중심인가 교사 중심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앤더슨의 유형 분류와 비슷하다.

애미돈(Arnidon)과 헌터(Hunter), 그리고 호프(Hough)는 플랜더스가 분류한 10개의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하여 교사-학생의 언어적 상호 작용을 관찰하였다. 애미돈과 헌터의 경우는 언어 상호작용 분류법(The verbal interaction system)이라 하여 11 가지로 분류하였다. 플랜더스와 애미돈과 헌터 그리고 호프의 분류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김민혜, 1990, 10쪽).

최용연(1969)은 지시적 수업 유형과 비지시적 수업 유형이 학생의 수업 성취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영향이 학생의 성격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수업 유형은 플랜더스의 모형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학생의 성격형성은 의존성, 불안성, 사회성 등의 세 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각 성격특성의 상집단과 하집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사회과의 학생학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시적 교수모형보다는 비지시적 교수 모형이 더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의존성이 낮고 사회성이 높은 학생이거나 안정감이 있는 학생에게는 비지시적 수업 유형이 효과적이었다.

<표 1> 플랜더스, 애미돈과 헨터, 호프의 언어 분석법 비교

영역	플랜더스	애미돈과 헨터	호프
교사의 발언	비지시적 발언		
	1.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	· 받아들임 ① 아이디어, ② 행동, ③ 느낌	· 온정적으로 학생의 느낌을 명백히 하고 받아들임
	2. 칭찬 혹은 권장		· 칭찬 및 보상
	3. 학생의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		· 학생의 지적인 생각이나 지능을 명백히 하거나 받아들임 · 학생 질문에 대한 반응
	4. 질문	① 좁은 질문 ② 넓은 질문	· 질문
	지시적 발언		
	5. 강의	· 지식이나 의견의 제공	· 지식이나 의견을 주는 경우
학생의 발언	6. 지시	· 지시하는 것	· 요구하며 명령하는 경우
	7. 비판 혹은 권위를 부리는 것	· 거부함 ① 아이디어, ② 행동, ③ 느낌	·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는 경우 · 비판하며 거절하는 경우
	8. 학생의 반응으로서의 대답 (단순답변)	· 교사에게 반응함 ① 예측할 수 있게 ② 예측할 수 없게 · 다른 학생에게 반응함	· 좁은 답변
기타	9. 학생의 능동적인 말(넓은 답변)	· 학생의 교사에 대한 질문 ·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질문	· 넓은 답변 · 학생의 질문
	10. 작업, 침묵이나 혼동	· 침묵 · 혼동	· 침묵 ① 지도된 연습이나 행동, ② 침묵 및 묵상, ③ 시범 · 맞지 않은 행동

변영계(1969)는 '교사의 자질별 교사·학생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적 연구'라는 연구에서 학급의 정서적, 사회적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사가 교수 학습과정에서 학생들과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떠한 형태를 이루는가에 대하여 교사를 자질별로 나누어 각각 그 형태를 밝혀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질이 높은 교사는 자질이 낮은 교사에 비해 학생들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발언, 학생들을 칭찬 또는 격려하는 발언,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을 명료화시켜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자

질이 낮은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강의하는 발언, 학생들을 꾸짖고 버릇을 고치려는 지시나 비판을 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대구의 10개의 초등학교가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각 학교에서 음악 수업 한 시간씩 10명의 교사가 실시한 10시간의 음악 수업이 대상이 되었다. 분석된 10개의 수업을 학년별로 보면, 3학년 3개 학급, 4학년 3개 학급, 5학년 1개 학급, 6학년 3개 학급이었다.

2. 연구도구

플랜더스의 언어 상호 작용 분석법을 이용해 음악 수업을 분석하였다.

1) 플랜더즈의 언어 상호 작용 분석

플랜더스(Ned Flanders)도 수업 형태를 다른 연구자들과 비슷하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그 하나는 지시적 경향(directive influence)이며 다른 하나는 비지시적 경향(indirective influence)이다. 이 분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수업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을 상호 작용을 언어를 중심으로 분류된다. 크게 교사의 언어, 학생의 언어 그리고 그 외의 것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된다. 첫째, 수업에서 교사의 언어가 학생들의 말과 행동을 제한하는 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 혹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관찰·분류한다. 둘째, 학생들의 언어 형태도 분류한다. 셋째, 교사나 학생의 언어 분류 중 어디에 분류되어야 할지 애매한 작업, 침묵, 혼동의 부분은 따로 분류한다.

플랜더스는 다시 위의 세 영역을 10개의 세목으로 분류하였다. 10개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김종서 외, 1983, 61-71쪽).

제 1 항목 : 학생의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

이 항목은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표현하였을 때, 학생들 간의 어떤 느낌이 있다

는 것을 교사가 미리 알았을 때, 야단 또는 벌함이 없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학생들의 느낌을 받아들임으로서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교사의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

제 2 항목 : 칭찬 또는 권장

이 항목에는 학생들의 긴장을 풀기 위한 교사의 농담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농담이 교사를 무시워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어떤 학생을 회생시킴으로서 웃음거리가 되었다면 제 7 항목인 비난에 속한다. 권장은 용기를 돋우어 주는 것이며 칭찬과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

제 3 항목 : 학생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

이 항목은 느낌을 받아들이는 제 1 항목과 비슷하나, 제 1 항목이 감정과 관련이 있다면 제 3 항목은 지식과 관련이 있다. 교사가 하는 말이 학생의 아이디어라면 이 항목에 속한다.

제 4 항목 : 교사의 질문

이 항목에서는 학생의 답변을 요구하는 교사의 질문이 여기에 속한다. 학생의 답변을 요구하는 교사의 의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질문형이라도 교사가 답을 기대하지 않는 말은 제 5 항목 '강의'에 포함된다.

제 5 항목 : 강의

이 항목은 수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사의 언어 행동이다. 교사가 사상, 의견, 지식, 생각,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말이나, 단원 제목의 도입, 앞으로 할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음악 수업에서 교사가 노래로 악기로 시범을 보이는 것이 이 항목에 포함시켰다.

제 6 항목 :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것

명령이나 지시라도 판단되는 기준은 학생들의 반응에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지시라는 것은 첫째, 언어 이외의 행동으로 학생의 복종을 요구하는 교사 발언, 둘째, 읽기와 작업에 관한 지시, 셋째, 긴장감을 수반하는 단순한 학생의 언어적인 반응을 제시하는 교사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 수업에서 노래를 다같이 부르려고 수를 센다든지 혹은 '시작'하는 것들을 이 항목에 포함 시켰다.

제 7 항목 : 비판이나 권위를 부리는 것

학생들을 야단치고, 비판하고, 비웃고, 주의 집중을 원하며 비꼬는 말을 하고, 핀잔을 주는 것과 같은 교사의 발언이 이에 속한다. 또, 교사가 권위를 부리거나,

잘난 체하거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자기 방어를 하거나, 학생의 질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이 항목에 속한다.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의 음악 활동을 교정해 주는 것은 이 항목에 분류하였다.

제 8 항목 : 학생의 단순 반응적인 대답

이 항목은 학생들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교사의 좁은 질문이나 교사의 지시에 대하여 학생들이 말로써 반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단순 반응은 물론 긴 답변도 그것이 지식의 재생이면 이 항목에 포함한다.

제 9 항목 : 학생의 자발적인 발언이나 넓은 답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질문은 자발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해당한다. 즉, 강의 도중 의문이 나서 질문하거나, 다른 학생이 말한 것에 이견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거나, 교사나 학생이 말한 것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은 발언은 모두 이 항목에 포함한다.

제 10 항목 : 작업, 침묵, 혼동

이 항목은 작업, 침묵, 혼동 등이 포함된다. 작업에는 책읽기, 그림 그리기, 실험 실습 등이 포함되며, 작업이 계속되면 관찰자는 5초에 한 번씩 10을 기록한다. 교사가 판서를 하거나, 질문을 한 뒤의 침묵, 야단친 후에 침묵 등이 있다. 혼동은 학습 분위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누가 이야기하는지 분간하기 힘들 경우에 나타나는 수가 많다.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이 노래 부르기, 리듬 치기, 악보 읽기, 그룹 활동, 신체 표현 등은 이 항목에 포함시켰다. 교사의 수업 준비나 OHP, VTR 등을 이용하면 이 항목에 포함시켰다.

4. 연구 방법 및 절차

대구의 10명의 교사들에게 양해를 얻어 그들의 음악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3명의 연구 보조 요원은 플랜더스 언어 상호 작용 분석법을 8시간에 걸쳐 교육을 받았다. 그 후에도 분석할 수업이 아닌 다른 수업을 관찰·분석하며 문제가 되거나 애매한 부분은 연구자와의 토의가 계속되었다. 녹화된 테이프를 계속 반복해 보며 활동 영역별로 분석하고 각 영역의 시간을 재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모든 언어활동을 받아 적었다. 그 후 적혀진 것에 교사와 학생의 언어 활동을 플랜더스 분석법에 의해 번호가 매겨졌다(부록 1). 매겨진 번호들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었다.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플랜더스 분석법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해 컴퓨터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모든 데이터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활동별 실태

연구 대상인 10반의 수업은 모두 가창 곡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었다. 가창 곡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라 하더라도 보통 다른 영역의 활동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10개의 수업을 활동별로 시간을 재어 음악 수업 시간이 실제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의 1 차시별 준비 시간을 뺀 평균 실제 수업 시간은 33.1분이었고, 그 중 실제로 노래를 부른 시간은 평균 18.5분이었다. 가창 곡을 이용한 리듬 읽기, 창작이나 기악 등은 제외한 순수하게 노래 부른 시간을 낸 것이다. 전체 수업 시간의 반 이상인 56% 정도를 노래 부르는 데 할애하고 있었다. 평균 수업 시간 33.1분 중 13.3%인 4.4분을 창작에 할애하였으며, 기악에도 창작과 비슷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가창 곡의 리듬만을 분리하여 리듬연습을 하든가 가창 곡과 상관없는 리듬연습한 시간이 9.4%인 3.1분이었다. 그 외 음악이론을 공부한 시간은 전체 수업의 7.3%인 시간 당 평균 2.4분이었다. 연구 대상인 10개의 음악 수업은 분석한 결과, 음악 수업에 노래 부르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자세한 활동별 시간은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음악수업의 활동별 시간(분)

교사 활동	A	B	C	D	E	F	G	H	I	J	합계	백분율
노래하기	34	16	30	29	12	14	10	6	12	22	185	55.9
리듬연습		9	3			9			6	4	31	9.4
창작					2		15	13	14		44	13.3
기악		14	10				5	14			43	13.0
이론					14	6				4	24	7.3
기타			4								4	1.2
계	34	39	47	29	25	29	30	33	32	30	331	100%

2. 플랜더스 언어상호작용 분석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

1) 신뢰도

플랜더스 분석의 신뢰도는 10개 반의 수업을 관찰·분석한 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 같은 관찰자가 10개의 수업중 한 개를 무작위로 골라 다시 관찰하여 그 두 관찰의 상관도를 계수로 나타내었다. 상관계수는 0.9로 높은 신뢰도가 나왔다. 다음은 <표 3>는 2번에 걸쳐 이루어진 관찰의 비교이다.

<표 3> 1차와 2차의 관찰 빈도수

분류항목	1차 관찰(빈도수)	2차 관찰(빈도수)
1	2	1
2	26	27
3	27	22
4	42	52
5	140	134
6	72	78
7	2	3
8	22	26
9	16	31
10	164	188
계	513	562

2) 분류 항목별 해석

(1) 전 체

다음은 분류 항목별 해석을 위해 각 항목별로 빈도수를 작성하고 백분율을 내었다<표 4>. 분류 항목별 빈도수를 보고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교사와 학생의 언어사용의 양을 비교해 보면 교사가 말한 것¹⁾은 전체 수업의 54.3%인데 반해 학생의 말²⁾은 6.3% 밖에 안 된다. 강의 중심 시간이 아닌 음악 시간에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말을 시키거나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결론이다.

1) 1항목부터 7항목까지의 합

2) 8항목과 9항목의 합

둘째, 학생들의 느낌을 받아들이고, 칭찬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1, 2, 3항목의 계가 7.2% 인데 비하여 지시하고 야단친 6, 7항목의 계가 거의 배인 14.3%이다. 1, 2, 3항목의 빈도수의 계를 '비지시적 영향'이라고 보고, 6, 7항목의 계를 '지시적 영향'이라고 하며, 수업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 수정 비지시비³⁾는 0.34이었다. 이 비지시비는 최소한도 0.5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34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교사들의 수업이 상당한 정도로 지시적, 전체적, 교사 중심적 수업을 전개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 1항목의 학생의 느낌을 받아들이는 발언은 전체 수업의 0.3%밖에 안되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3항목은 2.7%로 적다. 즉, 학생에 대한 배려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항목의 칭찬은 4.2%고, 7항목의 야단치는 것은 0.9%로 칭찬보다 훨씬 적었다. 즉, 교사들은 음악시간에 야단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는 좋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교사의 질문이 7.2%로 적다. 좋은 질문은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생의 발언을 보면 단순 대답이 8.1%인 것에 반해 넓은 대답은 4.2%에 그쳤다. 9항목이 많을수록 탐구력, 창의력, 비판력, 종합력 같은 고등정신의 기능이 함양됨을 생각할 때, 학생들의 넓은 답을 더욱 더 권장해야 한다.

일곱째, 지식 내용 강도인 교사의 강의와 질문인 4항목과 5항목의 합이 32.8%이었다. 일방적인 교사의 지식 내용 강도가 상당히 높다.

<표 4> 분류 항목별 백분율(전체)

분류항목	빈도	%
1	16	0.3
2	218	4.2
3	137	2.7
4	372	7.2
5	1321	25.6
6	690	13.4
7	44	0.9
8	218	4.2
9	109	2.1
10	2019	39.2
계	5144	100

3) 비지시비 = 비지시/(비지시+지시) = (16+218+137)/((16+218+137)+(690+44))=371/1105=0.34

여덟째, 전체 시간의 거의 40%가 10항목에 해당되었는데 이 중 50% 정도는 학생들이 노래를 하는데 보낸 시간이고, 창작, 악기연주 등을 위한 그룹 활동이 20% 정도 되었다. 그 다음 많은 활동이 판서로 10%정도 되었으며, 악보 읽기가 8%정도 되었다.

(2) 각 교사의 항목별 비교

다음은 각 교사의 수업을 해석을 위해 교사별로 각 항목별로 빈도수를 작성하고 백분율을 내었다<표 5>. 1항목의 학생의 느낌을 받아들이는 발언의 비율이 가장 많은 수업은 E 교사의 수업으로 15%이었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자극하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3항목 항목도 E 교사가 5.6%로 가장 많았다. 즉, 학생에 대한 배려가 E 교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체 교사 10명 중 1항목이 0%인 교사도 5명이나 되었다. 2항목의 칭찬을 가장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7항목의 비난을 적게 쓴 교사는 D교사이었다. D교사가 한 칭찬은 9.2%로 한 시간에 무려 69회나 되었다. 반면에 비난은 11회에 그쳤다. 그에 반해 I교사의 경우, 칭찬을 단 1회만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표 5> 각 교사의 백분율 비교표

교사 항목	A	B	C	D	E	F	G	H	I	J
1	0.0	0.0	0.7	0.4	1.5	0.4	0.0	0.2	0.0	0.0
2	2.8	2.8	5.5	9.2	2.7	5.1	0.4	1.7	3.4	5.6
3	4.7	1.6	2.7	1.5	5.6	5.3	0.0	0.8	1.7	2.5
4	10.7	3.9	6.5	3.9	14.5	8.2	3.2	2.7	9.0	10.1
5	22.4	32.6	24.5	20.3	28.2	27.2	22.9	19.1	33.9	20.7
6	13.9	13.0	11.3	21.1	7.1	14.0	8.7	15.1	10.1	14.4
7	0.00	0.9	0.2	1.5	1.5	0.4	1.2	2.7	0.0	0.3
8	7.2	3.6	4.6	0.8	7.1	4.3	2.4	1.5	4.3	8.6
9	1.5	1.6	1.9	1.9	5.0	3.1	0.0	0.0	4.0	0.5
10	36.4	39.9	41.9	39.2	26.9	31.9	61.2	56.1	33.4	37.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교사의 질문은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효과를 낸다. 가장 질문을 많이 쓴 교사는 E 교사로 한 시간에 14.5%로 70회나 사용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이상적인 학생들의 반응인 넓은 답변도 5.0%로 24회나 되었다. 즉 E 교사는 질문을 많이 할뿐만 아니라 좋은 질문인 열린 질문도 많이 한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학생들의 넓은 답인 9항목이 단 한 건도 없는 교사의 수업도 2

건이나 되었다. 9항목이 많을수록 탐구력, 창의력, 비판력, 종합력 같은 고등정신의 기능이 함양됨을 생각할 때, 학생들의 넓은 답을 더욱 더 권장하기 위한 좋은 질문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수업행동을 100가지로 분석하는 행렬표

행렬표는 교사와 학생의 언어 상호 작용을 100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즉 10개의 각 항목 뒤에 어떤 항목이 오는지 그 빈도수를 측정한 것이다. 즉 줄(행, 行)이 선행 행동이고, 칸(열, 列)이 선행 행동에 뒤 따라 오는 후속 행동이다. 예를 들면 8째줄 7째 칸에 빈도수가 1이면 학생의 단순 답변(8항목)에 교사가 야단친 것(7항목)이 1회라는 것이다. 10째줄 10째 칸은 강의가 계속되는 것이 얼마인지를 뜻한다. 다음 <표 6>은 수업행동을 100가지로 분석한 행렬표이다.

<표 6> 수업행동을 100가지로 분석한 행렬표

	1	2	3	4	5	6	7	8	9	10	계
1	3	0	0	1	8	2	0	2	0	0	16
2	0	62	16	11	76	36	5	3	2	7	218
3	1	5	13	39	56	18	1	1	2	1	137
4	1	3	5	50	61	30	2	140	28	52	372
5	4	21	11	165	696	289	12	8	7	108	1321
6	0	27	5	37	154	203	9	24	21	210	690
7	2	4	0	3	15	11	7	1	1	0	44
8	1	12	42	32	70	15	1	33	5	7	218
9	0	19	27	5	8	7	2	3	38	0	109
10	4	65	18	29	177	79	5	3	5	1634	2019
계	16	218	137	372	1321	690	44	218	109	2019	5144

위의 <표 6>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줄과 칸의 1, 2, 3항목의 합은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의 느낌을 받아들이고 학생들의 발언을 명백히 해주며 칭찬하거나 권장을 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이용하는 영역이다. 여기의 빈도수의 합⁴⁾이 전체 수업의 1.9%로 너무 적었다.

둘째, 10개의 수업에서 교사가 한 질문의 수는 372회였는데 교사의 질문 바로 뒤에 학생들의

4) 빈도수의 합 : $3+0+0+62+16+1+5+13 = 100$, $100/5144 \times 100 = 1.944 \%$

단순 답변인 8항목이 140회(37.6%)가 되었으며, 반면에 학생들의 넓은 답인 9항목은 28회로 단순답변의 5분의 1밖에 안되었다. 질문 뒤에 답변을 듣지 않고 바로 강의(5항목)로 들어가거나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경우(6항목)도 91회나 되었다. 이것은 전체 질문횟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4.5%나 된다. 이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발표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학생들을 무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8, 9항목인 학생의 발언 다음의 교사의 반응을 분석해 보면 1, 2, 3항목의 칭찬이나 학생들의 감정을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교사의 반응이 101회(30.1%)였고, 반면에 학생들의 대답에 야단을 치거나 권위를 부리고 지시를 하는 횟수도 25회나 되었다.

4) 각종 지수

플랜더스는 위의 100간(間)의 행렬표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지수를 내어 수업을 분석한다. 교사의 비지시적 경향을 알아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은 플랜더스가 사용한 전체와 각 교사의 각종 지수<표 7>와 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표 7> 전체와 각 교사의 각종 지수

교사 지수	전체	A	B	C	D	E	F	G	H	I	J
① 비지시비	0.3	0.3	0.2	0.3	0.3	0.4	0.3	0.1	0.1	0.2	0.3
② 수정비지시비	0.3	0.4	0.2	0.4	0.3	0.5	0.3	0.0	0.1	0.3	0.4
③ 8, 9행의 비지시비	0.2	0.1	0.7	0.2	0.2	0.1	0.2	0	0	0.2	0.3
④ 계속적 비지시	2.0	1.5	0.6	2.6	3.9	3.7	2.1	0	0.4	1.2	2.5
⑤ 계속적인 지시	4.4	4.0	2.7	3.1	10.5	1.4	3.9	3.2	5.8	3.2	3.8
⑥ 계속적인 비지시비	0.3	0.3	0.2	0.5	0.3	0.7	0.4	0	0.1	0.3	0.4
⑦ 교사의 말	54.3	54.6	54.8	51.5	57.7	60.9	60.5	36.3	42.3	58.1	53.5
⑧ 학생의 말	6.3	8.7	5.1	6.5	2.7	12.1	7.4	2.4	1.5	8.3	9.1
⑨ 학생 발언비	0.1	0.2	0.1	0.1	0.1	0.0	0.1	0.1	0.0	0.1	0.2

(1) 비지시비(indirect/direct ratio)

어느 정도 비지시적인 수업을 하였는지를 의미한다. 교사의 말 중 비지시적인 언어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다. 지수의 계산은 $(1+2+3+4) / (1+2+3+4) + (5+6+7)$ 로 한다. 전체 수업의 비지시비는 0.3이었으며, 이 지수가 가장 높은 교사는 E교사로 0.4였고, 이 지수가 가장 낮은 교사는 G교사로 0.1이었다. 일반적으로 말해 비지시비가 0.5이상이면 비지시적인 수업을 하였다고 본

다. 조사된 10개의 수업 중 비지시적인 수업을 한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2) 수정비지시(revised indirect/direct ratio)

비지시비 계산 과정에서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는 4, 5항목을 빼고 계산한 것이다. 앤더슨은 강의나 교사의 질문은 학생 중심, 교사 중심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입장을 취한 것이다. 지수의 계산은 $(1+2+3) / (1+2+3) + (6+7)$ 로 한다. 이 지수도 0.5 이상이 되어야 좋은 비지시적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체는 0.34였고, E 교사가 0.5로 가장 높았으며, G 교사는 0에 가까워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아직도 지시적이고, 전체적인 음악 수업을 하고 있음이 밝혀진 셈이다.

(3) 8, 9항목의 비지시비

8, 9항목은 학생의 발언 항목이다. 학생의 발언에 교사가 어떻게 반응 또는 처리했는지를 보는 지수이다. 지수의 계산은 $(1+2+3) / (1+2+3) + (6+7)$ 로 한다. 이 지수도 0.5 이상 되어야 학생의 발언 처리 방법이 비지시적이며 민주적이라고 보는데, 전체 평균은 0.2였고, B교사가 0.7로 가장 높았으며, 0.1미만이 교사도 4명이나 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의 발언을 처리하는 교사의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계속적 비지시

결과 칸의 1, 2, 3항목의 백분율의 총계이다. 이것은 교사가 비지시적인 말을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지수가 높으면 학업 성적이나 태도면에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전체 평균은 수업 전체를 100%로 보았을 때 2.0%로 아주 낮았고, 가장 높은 교사도 3.9%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0%인 교사도 있었다.

(5) 계속적인 지시

이것은 위의 계속적인 비지시와 반대로 계속적으로 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했을 경우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결과 칸의 6, 7항목의 백분율의 총계이다. 이 지수는 계속적인 비지시와는 대조적으로 높았다. 전체 평균은 계속적인 비지시비에 두 배가 넘는 4.4%이었고, 가장 높은 D 교사는 전체 수업의 10.5%나 되었다.

(6) 계속적인 비지시비

이 지수는 계속적인 비지시와 계속적인 지시를 비(比)로 나타낸다. 계산은 '계속적 비지시/

(계속적인 비지시 + 계속적인 지시)'로 한다. 이 지수는 최소한 0.5는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체 평균이 0.3이고, 가장 높은 교사 E가 0.7 이었다.

(7) 교사의 언어 활동

이것은 교사의 언어사용의 비율이다. 이것은 교사의 말의 1, 2, 3, 4, 5, 6, 7항목의 합이다. 비지시적인 교사일수록 이 비율이 낮아진다. 플랜더스는 3분의 2법칙을 발견하였다. 보통의 수업에서는 전체 수업의 3분의 2(67%)가 교사나 학생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중 다시 3분의 2(44%)는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중 3분의 2(30%)가 지시적인 언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 3분의 2법칙을 깰 수 있어야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대상 수업에서는 평균 전체 수업의 54.3%가 교사의 말이었으며, 모든 교사가 36.3%에서 60.9%까지 교사의 말로 학생의 말을 합쳐도 3분의 2벽은 깰 양호한 수업이었다. 아마도 음악 수업이라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8) 학생의 언어 활동

학생의 언어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학생의 언어활동의 비율은 전체 수업의 6.3%였다. 학생의 말이 가장 많은 수업도 J교사의 9.1%로 10%미만이었다. 학생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최대한으로 주어야 좋은 수업이라 할 것이다.

(9) 학생 발언비

이것이 0.5이면 학생의 말이 교사의 말의 반 정도였다고 본다. 계산은 '학생의 언어/교사의 언어'로 한다. 평균이 0.1로 아주 낮은 편이었다.

5) 백분율 행렬표

백분율 행렬표<표 8>는 각 간(間)의 빈도수를 총계의 빈도수로 나눠 100을 곱한 것이다. 즉 각 간이 전체 빈도수의 얼마나 되는가를 %로 나타낸 것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백분율을 예를 들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질문(4항목, 7.23%) 뒤에 학생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강의(5항목)로 들어간 경우가 전체수업의 1.19%(질문의 16%)이었으며, 교사의 질문 뒤에 학생의 단순 답변(8항목)이 2.7%(질문의 37%)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의 넓은 답변(9항목)이 0.55%로 적었다.

둘째, 강의 도중 질문은 전체 수업의 3.2%뿐이었다.

셋째, 지시(6항목)와 지시를 계속한 경우도 전체 수업의 3.95%나 되었다.

넷째, 비난(7항목) 뒤에 비난을 계속한 경우도 0.14%나 되었다.

다섯째, 학생의 단순 답변(8항목) 뒤에 칭찬(2항목)이 0.24%이었고, 학생의 넓은 답변(9항목) 뒤에 칭찬이 0.52%로 교사들은 학생 답변에 칭찬이 매우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백분율 행렬표

	1	2	3	4	5	6	7	8	9	10	계
1	0.06	0.00	0.00	0.02	0.16	0.04	0.00	0.04	0.00	0.00	0.31
2	0.00	1.21	0.32	0.22	1.48	0.70	0.10	0.06	0.04	0.14	4.23
3	0.02	0.09	0.26	0.76	1.09	0.35	0.02	0.02	0.04	0.02	2.66
4	0.02	0.06	0.09	0.98	1.19	0.59	0.04	2.70	0.55	1.02	7.23
5	0.08	0.41	0.22	3.20	13.53	5.61	0.24	0.16	0.14	2.00	25.59
6	0.00	0.53	0.09	0.72	3.00	3.95	0.18	0.47	0.41	4.08	13.41
7	0.04	0.08	0.00	0.06	0.29	0.22	0.14	0.02	0.02	0.00	0.85
8	0.02	0.24	0.82	0.63	1.37	0.29	0.02	0.64	0.09	0.14	4.23
9	0.00	0.36	0.52	0.09	0.16	0.14	0.04	0.06	0.74	0.00	2.11
10	0.08	1.26	0.34	0.56	3.44	1.54	0.09	0.06	0.09	31.71	39.25
계	0.31	4.23	2.66	7.23	25.59	13.41	0.85	4.23	2.11	39.25	100.00

항목별 백분율<표 8>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해석의 기준은 김종서의 해석의 기준을 따라 했다(김종서외 1983, 123쪽).

(1) 제 1 항목

제 1항목은 어떤 교사든지 극히 적게 사용한다. 보통 전체 시간의 0.5%보다 적게 나타났다. 지시적 교사와 비지시적 교사 사이에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음악 수업에서는 0.31%로 좋은 결과는 아니나, 보통 수준은 된다. 물론 이 항목은 많을수록 좋은 항목이라 할 수 있다.

(2) 제 2 항목

제 2항목은 칭찬인데 보통 지시적 교사나 비지시적 교사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통 평균을 내면 2%내외가 나온다. 이 연구의 음악수업에서는 4.23%로 칭찬을 다른 수업에 비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 3 항목

이 항목은 지시적 교사와 비지시적 교사가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이다. 지시적 교사의 평균은 2%인데 비하여 비지시적 교사의 평균은 9%나 된다. 과목간의 차이가 큰 것도 이 항목의 특징이다. 이 연구의 전체 평균은 2.66%로 지시적 교사의 평균에 가까웠다.

(4) 제 4 항목과 제 5 항목

제 4 항목과 제 5 항목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지시적 교사와 비지시적 교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보통 수업의 평균은 제 4 항목이 8-15%이고, 제 5 항목은 25-50%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수업에서는 7.23%와 25.59%로 보통 평균보다는 낮았다. 아마도 음악 과목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비지시적 수업일수록 이 수치가 낮으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5) 제 6 항목

지시적 교사와 비지시적 교사와의 차이가 많은 항목이다. 지시적 교사는 그 평균이 8%인데 비해 비지시적 교사는 그 평균이 4%이었다. 음악 수업에서는 13.41%로 분석된 음악 수업에서는 지시가 무척 많은 것으로 좋지 않게 나타났다.

(6) 제 7 항목

지시적 교사와 비지시적 교사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 지시적 교사는 그 평균이 5%인데 비해 비지시적 교사는 그 평균이 1%미만이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음악 수업에서는 0.85%로 비한 이 1%미만인 좋은 결과가 나왔다.

(7) 제 8 항목

제 8항목은 전체 %보다 어떤 항목 다음에 왔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시적 수업에서는 4-8항목 다음에 오는 경우가 50%이상으로 많았고, 비지시적 수업에서는 30%정도 되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음악 수업에서는 50%이상이 4-8항목 다음에 온 것으로 지시적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8) 제 9 항목

이 항목은 지시적 교사와 비지시적 교사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 지시적 교사일수록 이 항목의 %는 높다. 이 항목의 %가 높다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의견을 수업시간에 발

표한다는 증거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음악 수업에서는 전체 시간의 2.11%가 이 항목에 분류되었다.

(10) 제 10 항목

이 항목으로는 지시적 교사나 비지시적 교사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지시적 교사의 백분율이 비지시적 교사의 백분율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나 백분율보다도 활동 내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10항목이 주로 판서나 개인으로 읽기에 사용되었다면 위의 원리가 적용될 것이고, 창의적인 그룹활동이나 그룹토의에 사용되었다면 그 반대일 것이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수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악 수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첫째,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악 수업을 한 단위 수업별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신체표현, 이론 등으로 나누어 영역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 차시의 평균 수업 시간은 33.1분이었고, 그 중 노래부르기에 보낸 시간은 18.5분으로 전체 수업시간의 56%이었다. 그 다음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이 창작과 기악으로 각각 수업시간의 13%정도를 보내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리듬 연습과 이론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음악 수업에서 노래 부르기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수업임을 감안하면 노래 부르기 외에 신체 표현이나 감상 수업 등을 많이 늘려야 효과적인 음악 수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플랜더스 언어 상호 작용 분석법(The Flanders Category System)을 이용하여 음악수업을 분석한 결과, 신뢰도는 0.9이었고, 음악 수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언어 활동의 유형을 10가지로 분석한 결과 전체 수업 시간의 강의가 25.6%이었고, 지시가 13.4%고, 그 외 학생들의 활동이나 판서(제 10항목)가 39.2%이었다. 음악 수업이라 다른 과목에 비해 강의의 비율이 적고 학생 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강의보다 학생의 그룹활동이나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등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사의 언어 활동을 지시적과 비지시적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느낌을 받아들이고, 칭찬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1, 2, 3항목의 계가 7.2% 인데 비하여 지시하고 야단친 6, 7항목의 계가 위의 거의 배인 14.3%이다. 수업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 수정 비지시비는 0.34이었다. 이 비지시비는 최소한도 0.5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34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교사들의 수업이 상당한 정도로 지시적, 전체적, 교사 중심적 수업을 전개하였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칭찬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며, 지시나 비판 등은 대폭 줄여야 학습효과는 물론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사회성 발달에도 좋을 것이다.

넷째, 학생의 언어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발언은 주로 교사의 질문 뒤에 나타났는데 10개의 수업에서 교사가 한 질문의 수는 모두 372회였는데, 교사의 질문 바로 뒤에 학생들의 단순 답변인 8항목이 140회(37.6%)가 되었으며, 반면에 학생들의 넓은 답변 9항목은 28회로 단순답변의 5분의 1밖에 안되었다. 즉 교사의 질문 자체도 열린 질문이 아닌 단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학습의 분위기도 학생이 자진해서 질문하고 토의하는 분위기라기 보다는 교사의 질문에 간단히 답하는 수동적인 분위기였다. 교사의 질문의 형태도 바뀌어 되겠지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즉 제 9항목의 비율이 많은 수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와 학생의 언어 활동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교사가 말한 것은 전체 수업의 54.3%인데 반해 학생의 말은 6.3% 밖에 안 된다. 강의 중심 시간이 아닌 음악 시간에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말을 시키거나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결론이다. 적어도 교사의 발언의 반은 학생이 발언이 차지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의 발언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질문 뒤에 답변을 듣지 않고 바로 강의로 들어가거나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경우도 91회나 되었으며 이것은 전체 질문횟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4.5%나 된다. 이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발표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학생들을 무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또, 8, 9항목인 학생의 발언 다음의 교사의 반응을 분석해 보면 1, 2, 3항목의 칭찬이나 학생들의 감정을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교사의 반응이 101회(30.1%)였고, 반면에 학생들의 대답에 야단을 치거나 권위를 부리고 지시를 하는 횟수도 25회나 되었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말할 기회도 충분히 주고 있지 않거나, 학생들의 발언 후에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어야 하는데, 무시하거나 심지어 비난도 많았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하며, 또 교사가 관심만 가지면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좀 더 나은 연구를 위해서는 이미 분석한 10개의 수업이외의 더 많은 수업의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도 대구이외의 전국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 교사 본인이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때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민혜, *교사관심에 의한 수업형태 및 교사-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종서·김영찬, *수업형태분석법*, 서울 : 교육과학사, 1983.
- 변영계, *교사자질별 교사·학생 언어상호작용 분석방법의 훈련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69.
- 최용련, *두 교수 유형이 다른 성격 특성을 가진 아동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경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69.
- 허영, *수업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Anderson, H. "The Measurement of Domination and Socially Integrative Behavior in Teachers, Contacts with Children," *Interaction Analysis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E. J. Amidon and J. B. Hough(ed.) Reading :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67, pp. 24-46.

ABSTRACT

An Evaluation of Music Class in Elementary Schools

Kyungsil Hyun

This paper surveys and analyzes the practice of music teaching and discusses directions to go, in order to find out teaching methods that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Ten elementary schools in Taegu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videotaped and analyzed 10 hours of music teaching, each performed by a different teacher. The students taught are from third graders to the 6th graders. We analyzed the kinds of language that teachers and students use in class, by means of the Flanders Category System. In this system, language activity (expressions) used in class are classified into 10 categories : (1. accept students' feeling. 2. praise or encourage. 3. accept or use students' ideas. 4. teacher's questions. 5. lecturing. 6. giving directions. 7. criticizing. 8. students' simple responses. 9. Students' questions or statements. 10. Silence or confusion.) The first 7 categories are teacher activity and the last three categories are students' activity. It turned out that 25.6% of the time is spent for lecturing, 13.4% of the time for giving directions, and 39.2% for students' activity and teacher's writing on the blackboard. Due to the nature of music teaching, lecturing is less 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classes. This seems desirable. The nondirective expressions that accept students' feeling (1), praise them (2), and use their ideas (3) are 7.2%, but the directive expressions that give directions (6) and criticize (7) are 14.3%. Their ratio (nondirective/directive) is 0.34. It means that music teaching is still teacher-centered and does not emphasize student's involvement. The nondirective-directive ration should be at least 0.5. Teachers should understand encourage students more compared to rather than giving directions and criticizing. It will improve their human character and social interaction ability in addition to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The students express themselves for the 11% of the time, and their expressions are just simple responses to the teacher's questions.

Teachers need to phrase their questions and set up the mood of class so that the students may feel free to ask and express themselves.

〈부 록 1〉

19. 5학년 '귀뚜라미 노래잔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귀뚜라미 노래잔치'를 선생님 장구장단에 맞추어서/ 한번 불러 봄

⑩ ⑤ ⑤ ⑥

시다./ '귀뚜라미' 이 정도 음높이로. / (교사의 장단에 맞추어서 노래부른다.)

⑤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자, 고개를 다 숙여서 하는데, / 악보보고 2절 /한번 불러봅시다./ (2절을 부른다.)

⑦ ⑤ ⑥ ⑩ ⑩ ⑩ ⑩ ⑩ ⑩

어, 대체로 정확하게/ 참 잘 부르는데./

② ②

자, 선생님 따라서 2마디씩/ 불러봅시다./ (잘 안 되는 부분을 교사를 따라 2마디씩 따라

⑤ ⑥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부른다.)

그 다음, 둘째 단 제일 많이 틀리는데/ '귀뚜라미 노래잔치' 시작/ '귀뚜라미 노래잔치'를

⑦ ⑤ ⑥ ⑩ ⑩ ⑩ ⑩ ⑩ ⑩ ⑩

연습한다./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마디/ '오동잎지네' '오동잎지네'를 연습한다./

⑤ ⑥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잘했습니다./

②

자 이번에는 1, 2, 3, 4, 5조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 7, 8, 9조가 뭐하느냐 하면, '귀뚜라미'

⑥ ⑥

귀뚜라미~ 주고받고 같이/

준비/ 허리 펴고/ 선생님이 아까 주의해서/ 부르라고 했는데/ 주의해서 불러봅시다.

⑥ ⑥ ⑥ ⑤ ⑥

(교사의 장단에 맞추어 2마디 선창, 2마디 후창을 주고 받으며 노래한다.)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이번에는 바꾸어서 하는데, / 이번에 틀렸는데가 '귀뚜라미(♪♪♪♪)'가 아니라/ '귀뚜라미(

⑤ ⑦ ⑤

♪♪♪♪)입니다./ 다같이 요고 한번 해보고/ 리듬치면서/ 해봅니다./

⑥ ⑤ ⑥

하나둘시작/ (손뼉으로 리듬을 치면서 그 부분을 노래한다.)/

⑥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그렇지./ 바뀌서/ 한번 해봅니다./ 6, 7, 8, 9, 10조가 먼저 합니다./

② ⑤ ⑥ ⑥

(바뀌서 노래한다.)/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잘 불렀습니다./

②

오늘은 선생님과 뭐 하느냐 하면, / 장구를 치면서/ 제재곡을 재미있게 불러보기를/ 합니다./

⑤ ⑤ ⑤ 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장구장단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조금 어려운 장단은 연습해서/ 제재

⑤ ⑤ ⑤

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 악기 연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떠드는 조에게는 장구를 주지 않겠습

⑤ ⑤

니다./ 지금 10조가 한번 걸렸고, / 다른 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⑦ ⑦

자, 음악공책에 오늘 여러분이 가사를 만들기 위해서/ (OHP스크린을 내린후 TP를 이용해

⑤ ⑩ ⑩ ⑩ ⑩

서 설명한다.)/ 잘 보입니까?/ 예/ 둘째 단까지 다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첫째 단만 하

④ ⑩ ⑤ ⑤

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그린 후에 리듬을 그려 넣습니다./ 선생님이랑 첫째시간에 리듬

⑤ ⑤

치기를 해봤죠?/ 다 같이 리듬치기를/ 해봅시다./ 확대악보를 보며 리듬을 친다./

⑤ ⑥ ⑩ ⑩ ⑩ ⑩ ⑩ ⑩

자, 여기 첫째단만 리듬을/ 그려 넣어봅니다./ 선생님이 여기(TP) 해놓았는데 가사를 축으로

⑤ ⑥ ⑤

리듬을/ 그려넣어 봅니다./ '땀땀' 지금 리듬을/ 한번 그려 넣어 봅니다./ 음악 책을 보고해

⑥ ⑥ ⑥ ⑤

도 좋고/ 자기가 잘하는 사람은 안보고 한번 해보고 책과 확인해도 됩니다./ 각자 리듬을

⑤ ⑩ ⑩ ⑩ ⑩ ⑩ ⑩

짓는다./

⑩ ⑩

(아이들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도와준다.)/ 첫 번째 단만 하세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⑤ ⑤

한테 손들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봅니다./ (교사가 지은 리듬 TP자료를 비치면서)/ 자, 다같이 선생님이 했는거/ 리

⑥ ⑩ ⑩ ⑩ ⑩ ⑤ ⑥

듬치기 한번 해봅시다./ 2번/ 하나둘셋 시작/ (교사가 지은 리듬을 손뼉으로 친다.)/

⑥ ⑥ ⑩ ⑩

참 잘했습니다./

②

이걸 이용해서 오늘 장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리듬을 칠판에 적는다.)/ 여기 봅니다./

⑤ ⑩ ⑩ ⑩ ⑩ ⑩ ⑥

다했으면 설명을 들어야지/ 설명을 들어야 하죠/ 지금까지, 장구를 치는데 있어서 요기 기

⑥ ⑥ ⑤

둥이/. (떠드는 아이) 저기, 누구 현탁이!/ 현탁이 오늘 몇번째 그러노?/

⑦ ⑦

기둥이 요렇게 위로 올라간 것도 있고/ 밑으로 내려간 것도 있는데, / 장구치기에 있어서 기

⑤ ⑤ ⑤

둥이 위로가/ 있는 것은 어느 편을 치는건지 잘 생각해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⑤ ⑤

음표의 기둥이/ 위로 가 있는 것은/ 어디를 치죠?/ 채편.

⑤ ⑥ ④ ⑧

채편을 치죠/ 채편/ 그 다음 아래로 되어있는 것은?/ 복편.

③ ⑤ ④ ⑧

선생님이 장구를 칠 때/ 잘 관찰해 보세요/ (장구를 친다.)/

⑤ ⑥ ⑤ ⑤ ⑤ ⑤

복편소리가 강박에 있습니까?/ 아니면 약박에 있습니까?/ 강박/

④ ④ ⑧

강박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박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음표리듬을 밑으로 합니다/

③ ⑤ ⑤ ⑤

이말은 뭐냐하면/ 선생님 설명 잘 들어야죠/ 저게/ 요기 강약약 중강약약으로/ 노래 불러

⑦ ⑦ ⑤ ⑥

봅니다/ 이쪽에 8조, / 강약약중강약약 치면서/ 한번 불러봅니다/ 8조는 첫째단을 강약약하

⑥ ⑤ ⑥ ⑩ ⑩ ⑩ ⑩ ⑩ ⑩

면서 노래 부른다/

그만/ 자, 첫 번째 음과 몇 번째 음에 강박이/ 들어갑니까?/ 한마디 안에서 두 개의 음만/

⑥ ⑤ ④ ⑤

찾아본다면/ (칠판에 6/8박자 리듬을 그린다.)/ 한번 쳐보자/ 6/8박자 셋여림 치기/

⑥ ⑩ ⑩ ⑩ ⑩ ⑩ ⑩ ⑥ ⑥

강약을 살려 리듬을 친다/

⑩ ⑩ ⑩ ⑩ ⑩ ⑩

그만, / 몇 번째 음과 몇 번째 음입니까?/ 첫 번째 음과 네 번째 음/

⑥ ④ ⑧

그렇죠/ 첫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이니까, / 요기 첫 번째 음을 기둥을 밑으로 그리고 / 네 번

② ⑤ ⑤ ⑤

째음도 기둥을 밑으로 그려야합니다/ 이런식으로 자기가 했는 것을/ 한번 고쳐봅니다/ 첫

⑤ ⑥ ⑤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의 기둥을 밑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장구를 치기 위해서/ 강약약 중

⑥ ⑤ ⑤

강약약 노래부르면서/ 강박과 중강박에/ 오는거에다가 기둥을 밑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

⑤ ⑤ ④ ⑤

면 복편, 채편치는게 둘다/ 나올 수 있겠죠./ 각자 활동을 한다./

⑤ ⑩ ⑩ ⑩ ⑩ ⑩ ⑩

자, 선생님 한번 봅니다./ 보세요/ 자기 했는거랑 비슷하면 됩니다./

⑥ ⑥ ⑤

자, 요렇게/ (OHP를 보여준다.)/ 강약약 중강약약했을 때, 요런식으로/ 자, 다른거 생각하

⑤ ⑩ ⑩ ⑩ ⑩ ⑤ ⑤

지말고, / 기둥만 밑으로 해봅니다./ 예.

⑥ ⑧

자,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영덕이!/ 영덕이 한번 일어서 봅니

⑤ ⑤ ⑥ ⑥

다/ 선생님이 아까 기둥이 위로 되어있는 것은 채편을 친다고 했고, / 기둥이 밑으로 되어있

⑤ ⑤

는 것은 복편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채편을 칠 때 구음은 뭐니까?/ 채편의 구음, / 요런

④ ⑤ ④

게 위에 되어있는 것/ 덕/

⑧

옳지./ 덕이 구음이죠./

② ③

그 다음, 영민이!/ 그럼, 복편만 요렇게 치면 구음이 뭐니까?/

⑥ ⑤ ⑩

앉아라./ 잘봅니다./ 쿵덕/ 그다음 어떻게 되더라? / 덕덕쿵덕덕쿵덕덕쿵덕덕/

⑥ ⑥ ⑤ ④ ⑩

다같이 한번 읽어보자./ 하나들/ 고개 들고/ 덜한 사람 고개 들어라./ 지윤이! /이쪽에/

⑥ ⑤ ⑥ ⑥ ⑥ ⑦

하나들/ 저기 안본다./ 하나들시작! 쿵덕 쿵덕 쿵덕덕 쿵. 쿵덕덕 쿵덕덕 쿵덕덕/

⑤ ⑦ ⑥ ⑩

재미있지? /쿵은 왼손이고, 덕은 채편이니까 오른손이/ 되겠죠?/ 오른손 왼손준비/

① ⑤ ⑥ ⑥

오른손 왼손 잘 생각하면서/ 하나들 시작!/ 책상위에 장단을 친다/

⑤

⑥

⑩

입으로 먼저 구음으로 따라해/ 봅니다/ 쿵덕 쿵덕 쿵덕덕 쿵덕/ 쿵덕 쿵덕 쿵덕덕 쿵덕.쿵

⑤

⑥

⑤

⑩

덕덕 쿵덕덕 쿵덕덕/

자, 이런식으로 장단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번시간에는 장단을 만들려고 했

⑤

⑤

는데/ 어 교과서에 있는거 봅니다/ 조금더 어려운거 해보겠습니다/ 큰박이 쿵이나 덕앞에

⑥

⑤

⑤

오는데, / 채편과 북편을 함께 치는 것 뭇니까?/ 덩/

⑤

⑧

덩이죠/ 그래서, 제일 강한 첫박을 선생님이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치면 한박/ 덩으로 만들

③

⑤

⑤

어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조금 우리랑 치는거랑 비슷합니다/ (tp자료제시)/

⑥

⑤

⑩ ⑩ ⑩ ⑩

어려워 보이는데, / 사실은/ 요, 2마디가 똑같습니다/ 요, 두 마디랑 뒤에 나오는 두마디가

⑤

⑤

⑤

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요고 한번 봅시다/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덩덕 쿵덕

⑥

⑥

⑩ ⑩ ⑩ ⑩

덕쿵덕덕쿵덕

⑩ ⑩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덩덕 쿵덕덕 쿵덕덕 쿵덕.

⑥

⑥

⑩ ⑩ ⑩ ⑩ ⑩ ⑩

자, 책상을 조용히 한번 쳐봅니다, / 책상에 장단을 친다/

⑥

⑩ ⑩ ⑩ ⑩ ⑩ ⑩

(시끄럽게 책상에 장단을 치자) 치지 말고, / 이번에는 장구로 직접 해보겠습니다/ 앉아있는

⑥

⑥

⑤

사람은 책상 치기로 구음으로/ 같이 해줍니다/ 번호대로 칠 동안에/ (교실 앞에 준비된 장

⑥

⑤

⑩ ⑩ ⑩ ⑩ ⑩ ⑩